

| 사회적 대화 현장 |

노동조합, 사회연대를 위해 한 걸음 나서다

사무금융·공공부문 노동계의 공익재단 출범

박종훈 <참여와혁신> 취재팀장

불평등 양극화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가장 첨예하고 뿌리 깊은 갈등이다. 각계각층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소를 외치고 있지만, 좀처럼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찾기가 어렵다. 하루하루 경쟁적인 삶을 사는 현대인들에게 ‘내가 아닌 남을 돌아보자는 권유는 공허하다. 나보다 좀 더 넉넉한 남을 바라보는 시선은 대개 질시에 차 있다.

양대노총 공대위, 성과급 모아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

공공기관 종사자들과 금융산업 종사자들은 한국사회 평균보다 좀 더 여유 있는 계층에 속한다. 이들은 종종 하고 있는 일이나 개개인의 특성과 무관하게 금전적 보상을 넉넉하게 받고 있다는 이유로 매도되기 일쑤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노사 간 오랜 세월 단체교섭을 통해 얻어낸 복리후생은 불문곡직 ‘방만함’의 오명을 뒤집어썼다. 불평등 양극화 문제로 달아오른 민심은 이들을 ‘철밥통’으로 치부했다.

2016년 1월 공공기관의 개인별 성과연봉제 도입이 발표되자 공공부문 노동계는 상급단체를 막론하고 공동 투쟁을 벌였다. 이들 양대노총 공대위는 2017년 6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를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2017년 12월 21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에서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 출범식 행사를 가졌다.

성과연봉제 폐지 결정에 따라 이미 지급된 성과급 1,600억 원을 출연해 ▲사회적 격차 완화 ▲비정규직, 저소득 노동자 등을 보듬는 사회적 연대 ▲정의로운 사회 실현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활동에 쓰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2월 4일 한겨레신문사 청암홀에서는 재단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이사장 이병훈)의 창립 1주년 기념 토론회가 열렸다.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병훈 이사장은 "공공기관 노사가 출연해 설립한 재단인 만큼, 창립 1주년을 맞아 공공기관 노사가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 실현을 위해 어떤 실천을 해나가야 하는지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발제와 토론에 앞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노동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이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최 교수는 "적폐청산 이후 새로운 비전을 위해 공공부문 노사는 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한국사회 공동체성을 되살리는 과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라영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이어갔다.

이재열 교수는 ‘시대적 전환과 공공성, 그리고 사회적 가치’라는 주제로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의 자원공유를 통한 사회적 가치 증진, 공공조달 영역의 사회적 가치 중심 평가로 전환, 공공데이터 공유 플랫폼 및 데이터 큐레이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라영재 소장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과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경영평가를 위한 백화점식 사회공헌보다는 주요 목적사업의 연장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노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광표 소장은 ‘상생과 연대를 위한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역할’이란 주제의 발제에서 “과거의 정규직, 기업별 노조의 울타리를 깨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공공부문 노동계에 요구되며, 그런 의미에서 공공상생연대기금은 과거와 다른 노조활동의 새로운 영역”이라고 평가했다.

세 사람의 발제에 이어 이병훈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범기 기획재정부 장기전략국장, 박용석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송민 한국노총 공공노련 남부발전노조 위원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이 참여했다.

사무금융노조 ‘우분투 프로젝트’, 결실 맺다

사무금융 노사가 뜻을 모아 사회연대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뜻 깊게 사용하자는 ‘우분투 프로젝트’가 세간에 공개됐을 때, 많은 이들은 과연 목표한 시일 내 사업이 마무리될 지 의구심을 가졌다.

우분투 프로젝트는 올해 초 시작되었다. 사무금융서비스노조(위원장 김현정)는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특위는 ▲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 비정규직 정규직화 ▲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사회연대기금 조성 사업인 ‘우분투 프로젝트’와 관련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또한 3월 28일에는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해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4월 18일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5개 정부부처 대표와 32개 소속 사업장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회연대기금 조성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회연대기금은 불평등,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사정이 논의하고 노사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기금으로 정의했다.

이는 청년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실현 등 불평등, 양극화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하며



약탈금융, 상대적 고임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탈피하는 한편 노사가 동행하여 사회변화를 선도하는 주역으로 재평가되는 계기를 마련하자는 의미도 담긴다. 또한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실천적으로 기여하고, 업계를 선도함으로써 사무금융 산업 발전을 위한 ‘노사정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목적도 띠고 있다.

구체적인 사회연대기금 규모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200억 원씩, 총 600억 원의 기금을 모금하자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2018년 12월 현재 KB증권 노사, KB국민카드 노사, 애큐온저축은행 노사, 교보증권 노사, 하나외환카드 노사, 신한생명 노사 등 6개 사업장 노사가 기금 출연에 합의했다.

사무금융노조는 11월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불평등·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가칭)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출범 토론회’와 발기인총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분투 프로젝트의 의의와 새로 출범하는 재단의 미래에 대해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제 우리 노조가 기업과 공장과 직장의 벽을 넘어 사회의 소외된 약자들과 불평등의 문제 소득격차의 문제 등을 해결하는 사회연대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법제도 개정을 통한 사회대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재)공공상생연대기금, 금융산업공익재단, 사단법인 희망씨와 같이 사회연대를 위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모색하는 움직임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